

문 대통령 “부스터샷, 고령층 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

수석보좌관 회의... “철저 방역·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부스터샷(3차 접종)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최광수/기자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전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사용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지체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군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수령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Application schedule table for National Support Payment with icons for online, offline, and accessibility options.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전일 콜센터 (1533-2021) 지자체 콜센터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

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 '프로젝트 데이' 진행

'2021년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 취업준비과정 교육 성료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30일 오후 성남 경기장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 취업준비과정 교육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데이'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데이'는 교육생들이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교육의 취업준비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 취업준비 과정은 경기도 소재 대학(원) 재학생 및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해 지난달 5주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2개 차수 총 6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교육 등을 학습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경기도미래기술학교' 협력기업 검토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미지, 텍스트 기반의 전처리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준비과정 1, 2차 교육생 총 14팀이 참여했으며, 각 프로젝트 팀 성

과 발표, 데이터 산업 분야 명사특강,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면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해 다시 온라인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수도권 자전거 사고다발지 분석&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철타바퀴안전화조팀, 우수상은 '친환경 키워드 분석을 통한 플랫폼 별 여론과악-제로웨이스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그린하루팀, 장려상은 '이미지 분석을 통한 피트니스 자세 교정 모델'을 발표한 블록체인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의 상금도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철타바퀴안전화조팀 팀장인 김윤 학생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교육 기회와 함께 참가자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우수 팀에게 협력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준비 과정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연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프로젝트 데이 발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교육생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자리였다”라며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도 성공해 경기도 데이터 산업의 인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Large banner for Gyeonggi-do Assembly's 30th anniversary, featuring the mascot 'Soeun' and text: '지방자치부활 30주년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 인천시의회,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도의원

인천지역 내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의정 접견실에서 한국GM·인천시·인천시교육청·시민네트워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29일 시의회에서 한국GM을 방문, 카하카젠 사장 등 한국GM 경영진과 다양한 의견 나눔 자리를 시작했다.

이어 7월 15일에도 신은호 의장 주재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해 한국GM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전격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체는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지지



분위기 조성과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상품 애용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차량 구매추진 등을 위해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손민호(행정안전위원장)·임동주(산업경제위원장)·김병기(산업경제부위원장) 의원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 시민 불 조성 추진을,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한국GM 차량 우선 구매운동 및 상생협력 활동 등을 각각 전개하게 된다.

아울러 첫 협의체 구성원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신은호 의장은 "현재 인천시민들이 한국GM 차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구매욕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민호 의원은 "한국GM은 고용 유지, 다양한 차량 제작 등을 통해 시민

들과 기관들이 안심하고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임동주 의원은 "한국GM의 역사나 현재 처한 현실은 인천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한국GM에서는 안정적인 기업체 존속 여부를 알리는 장기적 비전 제시가 우선 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GM 관계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시민들이 한국GM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알리겠다"며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공기관에서도 한국GM 차 애용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첫 회의를 마치면서 신은호 의장은 "자랑스러운 인천의 대표기업인 한국GM은 협력사 취업자 수 포함 모두 3만4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약 5조 원(인천지역 전체 수출액의 12%)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한국GM과 인천지역사회가 '공존과 번영'으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도의원(더민주, 군포2)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중학교 임종철 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남유리 예산팀장, 군포시청 정중옥 비서실장과 함께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 교장은 "용호중학교는 군포시 혁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실이 없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식실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남유리 예산팀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용호중학교 급식실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희시도 의원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건강히 학교생활을 하는게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급식실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혜영/기자

## 홍성임 전북도의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이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했다.

홍성임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근래들어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

으며, 일·가정 양립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 지속가능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가정의 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임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사'라는 단어는 그동안 여성들이 해야 하는 역할로 고정관념이 뿌리가 깊었고, 그 가치에 대한 평가 또한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림자 노동에 불과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여남 간에 가사분담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의 많은 가정들에서 선순환적인 가정생활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서산시의회, 델타변이·돌파감염 증가에 '따로 또 같이' 정신 강조



"더 어려운 시련과 고통도 이겨낸 시민, 극복 위해 조금 더 힘내달라"-

있고, 돌파감염과 델타변이가 급속도로 유행하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경각심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염병 상황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시의회는 호소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등 개인적 차원의 동참을 의미하는 '따로'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변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같이'를 결합한 '따로 또 같이'의 정신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조금 더 힘을 내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희 의장은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방역 노력을 독려하고자 동료 의원님들과 목소리를 모으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발표 행사 없이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전국적으로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고정화/기자

## 김해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김해시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제2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보고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집행부 주요안건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김해 경제활력자금(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김해중합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상황 보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경 추진 ▲8.21 집중호우 및 태풍 오마이스 대처상황의 건 ▲김해여객(주) 시외버스 운행 정상화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집행부는 코로나19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타 업종대비 타격이 큰 업종에 최대 100만원의 김해 경제활력자금(총 59억원)을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사무국 안건으로 ▲2021년 김해시의회 토론회 운영 안내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원간담회 회의 시 속기작성의 건 ▲제8대 의원별 의정활동현황 통계자료의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유인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김해 경제활력자금(자체 재난지원금)을 시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여·야 의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종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시의회 제239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개최되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광용/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 '숲캉스' 프로그램 운영

# [칼럼] 허언증 환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 9월 10일부터 '포레스트 캠프 피크닉 패키지' 프로그램 진행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삼삼물산 리조트부문(사장 한승환)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프라이빗한 숲 속 '포레스트 캠프'에서 여유롭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숲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캉스는 숲과 바깥이 합쳐진 말로, 숲으로 떠나는 휴가를 의미한다.

에버랜드는 서울 인근에서는 보기 드물게 청정자연 속에 조성한 포레스트 캠프를 통해 올 가을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숲캉스 프로그램을 9월 10일부터 선보인다.

□ 포레스트 캠프는 에버랜드가 인근 향수산 일대에 가꾸 온 명품 숲인 '더 숲 신원리(용인 포곡읍 신원리)'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곳으로, 약 9만㎡(2만7천평) 규모의 프라이빗 자연 생태 체험장이다.

사방이 수심만 나무와 초화류로 둘러 쌓여 사계절 최고의 자태를 뽐내고 있고, 중앙 연못에는 물장군, 물방개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자연 학습장으로도 그만이다.

특히 넓은 잔디광장을 비롯해 벤치, 비치체어 등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곳곳에 마련돼 있고, 하루 입장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있어 대자연 속에서 가을을 느끼며 프라이빗한 휴가를 보내기에 좋다.

□ 포레스트 캠프 숲캉스를 이용하려면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행되는 피크닉 패키지를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포레스트 캠프 피크닉 패키지'는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프라이빗하게 휴식을 즐기며 힐

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피크닉 패키지 사전 예약 후 포레스트 캠프를 입장하면 일행별로 펼쳐져 매트 깔고 에버랜드에서 제공되는 피크닉 도시락을 먹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피크닉 체어, 그늘막 텐트 등 개인 휴식 장비나 추가 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또한 포레스트 캠프 일대를 자유롭게 다니며 자연 체험을 할 수 있고, 에버랜드 캐릭터가 현장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어 주는 포토타임과 버스킹 공연 등도 마련돼 있어 체험

객 전원에게 백산수(500ml×20개) 무료 쿠폰과 농심 스낵·음료 랜덤팩도 선물로 증정한다.

포레스트 캠프 피크닉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에버랜드는 고객들이 포레스트 캠프에서 다양한 문화, 레저 활동을 즐기며 일행끼리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포레스트 캠프는 다목적 잔디광장



요소가 풍성하다. 피크닉 패키지는 구성에 따라 포레스트 캠프만 이용하거나, 에버랜드 오후 이용권이 포함된 패키지도 구매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올 가을 농심과 함께 포레스트 캠프 피크닉 패키지 이용

과 야외 공연장이 마련돼 있고 트레킹, 명상, 요가,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일행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올 가을 GWP(Great Work Place) 행사나 발표회 등을 하기에 좋다.

조혜영/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4·3트라우마센터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로 자리매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 들어 8월까지 4·3트라우마센터 이용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제주를 대표하는 치유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문을 연 4·3트라우마센터는 15개월 만에 이용자 등록 643명, 시설이용 내소자 2만 996명(누적)을 기록했다.

올 들어 8월 26일 현재 시설이용 내소자는 1만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3희생자와 유족이 73년이 흐른 지금에도 4·3의 아픔을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4·3트라우마센터는 매 요일마다 문학치유, 음악치유, 원예치유, 명상치유, 운동치유, 방문치유, 야외치유,



4·3이야기마당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 상담과 신체치유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존 지상 2층 2개실을 재배치하고, 지상 1층 1개실을 추가 임대해 2층에 있던 상담실을 1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어 모든 직원들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치유·치료 전문가, 4·3전문가, 자원봉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센터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트라우마센터가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치유의 안식처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립 트라우마센터 법제화를 통해 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 용인도시공사, '신(新)산업과 도시부동산'강연회 개최

- 텔코리얼티그룹 최민성 회장 강연 -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글로벌 산업화에 맞춰 '신(新)산업과 도시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텔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내·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을 비롯한 40명의 실무직원이 참석했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도시공간구

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의 역할로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선진도시의 발전 사례 등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도시계획에 접목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도시개발에 있어 신산업에 대한 용인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고, 공동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향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최찬용 사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열린 자세로 변화를 인식하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구상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최민성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혜영/기자

# 구로구, '2021 구로청소년총투표' 실시

그런나래 주최하에 10개 정책 선정... 17일까지 온라인 투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정책!" 구로구가 '2021 구로청소년총투표'를 실시한다.

구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자치연합조직인 '그런나래'는 지난 5, 6월 2달간 대의위원회, 청소년 공론장과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학생회 등을 통해 191개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

받았다.

이 중 총 10개의 정책 청소년 학습 및 모임을 위한 공간 설치, 청소년 여가시설 다양화, 청소년 등·하교 시 교통비 지원, 지역 내 진로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이 총투표 안건으로 선정됐다.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7일까지 네이버 오피스 폼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구로구는 최대 투표율, 최대 투표수 학교 2곳을 뽑아 11월에 진행될 학생의 날 캠페인 때 간식차 또는 간식꾸러미를, 추천을 통해 참여자 중 3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다수표를 얻은 정책은 담당부서 검토, 10월에 열리는 '우리마을교육토론회'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 교육청과 관내 학교 등에 제안된다.

김미성/기자

# 허언증 환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것처럼 화려하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1천만 원, 이낙연 후보는 군 전역자 3천만 원, 정세균 후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1억 준다는데 대해 그거 다 세금인데 나라꼴이 어찌 되려고 그러냐며 같은 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성토했다.

부동산문제도 주택건설과 신도시 추진으로 혈값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너도나도 공언했다. 공약대로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그 좋은 세상 지금껏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않았으니 의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국민행복을 온갖 미사여구로 도배한 희롱에 불과했었다는 말인가.

아무리 당선이 중요하고 이기고 보자는 승부욕의 전성시대라지만 명색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 앞에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는 것인지 되고 말고 나오는 대로 지껄이면 그 뉘척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평소 아무 일 없을 때도 다들 죽네사네 하던 판이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가 불보듯 뻔한데 무슨 장밋빛 공약을 날발하는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걱정 안하고 살다보니 실질적인 국민생활의 현주소 모르는 것이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나 보좌관들이 온갖 공리 끝에 작성해주는 원고 읽는 수준이 오죽할까.

어느 대표가 원고없이 눈을 마주보며 가슴으로 진심을 논할 수 있을까. 어떤 후보가 자신의 안위와 출세와 같이 움직이는 패거리들의 먹 거리를 제쳐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나선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소가 지나간 자리는 풀이 뜯기고 쥐가 지나간 자리엔 알곡 껍데기가 남기 마련이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정도면 나름 그냥 살아오진 않았을 것이고 삶의 흔적이 있을진대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정치철학과 소신과 탁월한 리더십이 우선인 것이지만 사돈의 팔촌까지 죄다 먼지를 털어서 특정 인물들 등극시키려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아니다.

# 서귀포도서관, 제주 문화유산 이야기 참가자 모집

서귀포도서관은 제주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

배경까지 국민설득에 남용한다. 친미·친일이 살길이라는 쪽과 중국과 북한을 아군시 하는 측이 서로 이론으로 설전을 벌인다. 언제부터 외국이 우리를 살리고 죽였던가.

우리 살길을 우리가 못 찾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자국민의 통학농민까지 무참히 살육한 과거가 있었다.

그놈의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골육을 짜내기 위한 시스템위에 앉아 버티려고 서로 사대질하며 상대측을 성토했다. 대결 안까지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난입하는 치욕도 치렀으며 임금이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절을 할 때도 서로 내 때문이라며 닳을 하던 민중이었다.

당파싸움을 하던 외국 군인이 쳐들어 오든 무지 목매한 국민들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착하고 순한 게 죄였다고 그로 인한 피해함이나 처참하게 시달린 오랜 과거는 언제든지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마냥 평생하다 세자 책봉까지 이어지는 왕권시대가 아니다 보니 임기 5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속된 말로 알만하면 임기 끝날진대 마치고 나면 눈두렁에 시계 버렸다고, 승마 특혜 받았다고, 국정수행 하는 동안 이래저래 털어서 먼지나면 죽을 내지는 영어의 몸이 되어 비참한 말로를 보냈다.

청와대에 있다고 하루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두 번 가는 것도 아닐진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당선되어도 그 자리가 출세의 정상이거나 영광의 용상이라기보다 하늘이 주어진 명령에 따라 소신껏 나라꼴을 살피다 마치는 것이 도리다.

자고로 정치란 세금을 거둬서 쓰는 일인데 올해만 해도 555조원 세입에 보건복지노동에 200조, 교육에 71조, 국방에 53조 지방행정에 86조를 편성했다.

돈을 걷어 쓰다보면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공평하게 쓴다하더라도 누군가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

단연히 대통령의 자리는 온갖 욕과 원망과 한여름 모기떼들이 달려드는 형국의 자리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죽어서 오히려 거머잡고 욕을 내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특별한 과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 등이 나라를 위해 잘해 보라고 준 것이지만 당선자와 당선자를 도운 패거리 배를 채우라고 준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까지 모두 공익발전과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권리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다보니 사회 발전도 늦어지고 정치적 폐단과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특혜만 사색시켜도 별로 할 사람이 없는 정치, 단언컨대 차기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힘든 자리가 될 것이다.

늘어난 국가 부채, 침체된 내수시장, 코로나19 후유증에 국방·외교와 각 분야별 원상복구는 물론 국론분열에 대한 분합까지 산 넘어 산이다. 그 험한 자리를 도전하면서 말을 아끼지 않는 건 무슨 무모할일까.

박영/김국석

# 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본선 9.1 12시 개통

## 만성 교통 정체 서부간선도로 지하 80m에 10.33km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며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던 서부간선도로에 대신도 지하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뚫린다. 약 5만대의 교통량을 분산해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최고제한속도 80km/h).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복지 효과를 높이고 대기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의 31번째(서울시구간 26번째)로 건설되는 교량 '월드컵대교'도 개통돼 하루 평균 8만대 이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성산대교 교통량이 일평균 15만대→12만대로 약 21% 감소해 주변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월드컵대교(본선)'를 9월1일 12시에 동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본선)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산대교 및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내부순환로↔성수대교↔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양재대로↔강남순환로↔서부간선도로(지상)까지 연결돼 있었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신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에서 금천구 독산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km의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뜨자 5년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요금은 2,500원이다. '15.3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며 통행료로 수익을 낸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15일(수)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이하) 등이 통행이 가능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신원여의지하도로에 이어 국내 2번째 소형차전용도로로 화물차 등 중·대형차 오진입 방지를 위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에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중·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지하도로 내 최초로 고속 주행 중 차량번호가 인식돼 정차 없이 통행료 자동으로 부과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이용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된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



되어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이 방재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됐다. 피난시설은 대인용 24개소(250m 간격), 차량용 16개소(750m 간격) 등 총 40개소의 피난통로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진입차량 통제 후 반대편 터널로 신속대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재경보 발생시 화재 발생구역을 관제실(CCTV)에서 실시간 확인되며, 방수구역을 선택해 소화펌프를 가동, 5m 간격으로 설치된 물분무 노즐에서 방수돼 화재가 진압된다.

특히, 지하도로에 전용소방차 5대가 상시 배치돼 있어 화재진압 및 구조구난 작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용소방차에는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압축공기포)가 탑재됐다.

승차 인원 2명·구조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5set 탑재·전장 5.5m, 전고 2.4m, 폭 1.8m·물탱크 0.5톤, 폼탱크 0.1톤·압축공기포 방식(CAF, Compressed air foam system)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돼 일반도로로 바뀐다. 오는 '24년까지 보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및 평면교차로 등이 설치되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성산대교남단~소하ICT, 12.4km) 중 성산대교남단부터 금천교 부근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며, 최고제한속도는 80km/h → 60km/h로 하향 조정된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강서구 염창동·영등포구 양평동간을 잇는 연장 1,980m, 너비 31.4m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를 직접 연결한다. 이름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월드컵대교의 상징인 상징교 주탑은 우리전통의 석탑과 당간주, 학과 청송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었고, 마포나무 '황포돛대'의 향수를 주탑과 케이블의 비데칭으로 표현했다.

2000년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06년 실시설계 완료, '10년부터 공사를 착수했다.

'14년 수상구간의 교각 15개소를 시공하고, '18년 월드컵대교의 상징인 상징교 주탑을 '20년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인 강교거더를 거처했다.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데칭 사장교로 주탑의 경사각은 78도이며, 높이(100m)가 가장 높은 교량이다. 대칭인 사장교는 올림픽대교, 행주대교 등이 있으며, 주탑의 높이는 종전 올림픽대교 88m에서 월드컵대교 100m로 12m 높아졌다. 월드컵대교 주탑 하부에서 기초까지는 27m로 전체 길이는 127m이다.

'월드컵대교'는 향후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한강을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도록 주 경간(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이 225m로 한강위에 설치된 교량 중 경간이 가장 넓다. 올림픽대교(300m)가 가장 넓지만 주탑 4개(29.6m)와 양측 교각으로 분할돼 실제 경간은 138.2m이다.

특히,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었으며, 교량하부 이동식 점검시설 및 레일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됐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들들(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2.12월에는 공항대로와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를 바로 진입하는 램프와 월드컵대교에서 공항

대로로 진출하는 램프가 개통돼 강서구 및 양천구 지역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7월 세계적인 케이팝(K-POP) 대표 아이돌, 서울시 홍보대사 방탄소년단(BTS)이 월드컵대교를 배경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최상(9주) 1위를 기록한 'Butter' 뮤직비디오를 찍어 미국 인기 TV 토크쇼 '지미 팰린쇼(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방영되었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 달 동안 조회수 1,500만 가까이 기록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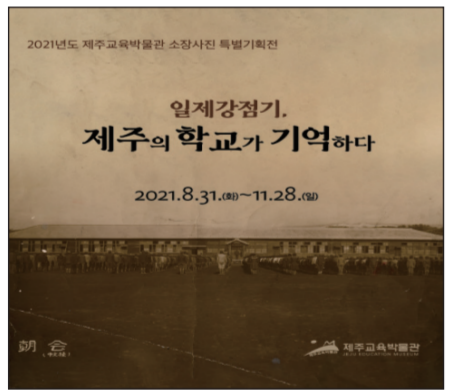
시는 방탄소년단의 MV를 통해 세계에 알려진 '월드컵대교'가 한강을 횡단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기능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개통을 앞둔 29일 13시 20분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방문해 막바지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월드컵대교는 북단에서 주탑까지 본선구간 약 200m를 걸으며 점검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공기정화시설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월드컵대교 본선의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에 성산대교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10분대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산대교 및 주변도로는 물론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발전은 견인하는 것은 물론 거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제주교육박물관,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가 기억하다' 개최



제주교육박물관은 소장사진 특별기획전 <일제강점기, 제주의 학교가 기억하다>를 8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서 일제강점기 학교 교육의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들을 선정하여 마련하였는데, 당시의 학교 교육이 우리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또한 태평양전쟁 등의 전쟁 찬양과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제주의 학교와 학생들을 기억하며, 더불어 주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 마포구, "마포의 신문물을 찾는 사람들, 마포신사가 떴다!"



마포구가 '마포신사(마포의 신문물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에피소드 '망원시장편'을 27일 유튜브(youtube)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마포신사'는 구가 지난 27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 마포 관광 전문 유튜브 채널의 공식명칭이다.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적 인기가 높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재미있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로 마포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광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채널 초기 유입자 확보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구는 망원동에 거주하며 유명세를 탄 '망원동 쥘쥘' 코미디언 김민기씨와 그와 찰떡 케미를 자랑하는 코미디언 김영씨를 '마포신사'의 메인 MC로 섭외했다.

구는 웹 예능 컨셉의 10분 내외 재미있는 시리즈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일종의 간접광고(PPL)처럼 배경에 녹여내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지자체 관광 홍보 영상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고 친근감을 제고해 향후 마포 방문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개한 '마포신사-망원시장편'에서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화제인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2명의 MC가 사진 속 마

## 강남구, '라이브커머스'로 중소기업 중국 진출 돕는다

'기본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 31일부터 실시간 영상과 채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채널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 소비의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에 방송되는 '중국 라이브커머스 수출마케팅'은 삼성동 코엑스 스튜디오에서 '위챗' 등 중국의 유명 플랫폼을 통해 3주간 8회 진행된다. 화장품 및 의류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12개 관내 기업이 참여했고,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한다.

구는 앞서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강소라(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프로젝트에서 착안한 이번 라이브커머스가 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조상순기자

## 도봉구, 사회보장정책 제안회로 지역사회 복지정책 발굴

도봉구는 8월 27일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2022년 도봉구 사회보장정책 제안회'를 개최했다.

'도봉구 사회보장정책 제안회'는 2019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안회는 1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지난해 실무분과에서 제안했던 결과를 상영하고 뒤이어 2022년 사회보장정책을 제안하고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에서는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 서비스 급식단가 인상 재고 및 구예산 추가급식비 책정에 대한 제안 도봉구 보건 복지 실무자 심리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확대방안 효과적인 자살 고위험군 관리리를 위한 자살위험성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등 분야별 민관 장애복지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하는 '도봉, 협력 플러스



(+) 협력에 협력을 더하다.' 도봉구 중증장애인 의료지원체계 구축 법정 민간단체 위원들에 대한 도봉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도봉구 여성노동자 보건 환경 증진 사업 제안 도봉구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민 관 공유모임' 제안 환경변화에 따른 도봉구 아동.청소년 학습과 활동에 관한 '코호트 조사' 발표, 총 10개의 사회보장정책 의제들이 발표되었다.

발제된 정책들은 담당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토론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과 검토의견들은 2022년 도봉구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주의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 도내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 일제점검

8월 31일 20 ~ 23시, 23개 시군 방역 동시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에 대해 23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인 방역 활동에도 유흥시설, 식당 등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이다.

경북도, 시군(읍면동 공무원 포함), 경찰, 관련단체 등으로 방역점검단을 편성해 동시시간대(8월 31일 20 ~ 23시 까지)에 실시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소를 방문해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 현장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운영시간 준수 여부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밀집도 완화 여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세기기자

# 하동 진교의 '나만 편하면 그만', 쓰레기 불법 투기로 오염된 야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 14-11번지 등 임야 일대에 각종 쓰레기의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 일대의 쓰레기 불법 투기와 위험천만한 불법 소각행위는 지난번에도 관계기관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으나 투기와 단속은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복되어 청정 해안지역을 훼손시킨 것이다.

또한 이곳은 땅 소유주가 개발허가(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상황임에도 대량의 쓰레기와 타인의 땅을 무단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주민이 있어 인가 기간 내에 사업의 실행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자의 취재 중 땅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약 18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처리하여 주변 환경은 깨끗이 정화되었다.

현행 관련법규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된 토지의 청결유지 책임을 묻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쓰레기 투기 행위로 오염된 토지도 소유주 또는 점유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 A모씨에 따르면 농업용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뽕나무 등의 가지치기로 발생한 쓰레기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으로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다 하며, 땅 소유주는 이번에 폐기물 업체에 지불한 처리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민관합동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많은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특수학교 10교를 대상으로 관리주체, 관계 기술직 공무원,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월 1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성 및 마감 ▶전기안전관리 및 방화구획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소방설비 ▶피난설비 ▶급식소 위생관리 상태 ▶식품보관 상태 등이며, 첨단 기술장비를 활용한 안전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진단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김중남기자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진단 실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안전 정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7일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점검 현장인 인천인혜학교를 방문해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선제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직접 살펴봤다.

도성훈 교육감은 "안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및 교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유흥시설</b>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b>유흥시설</b>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b>유흥시설</b>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b>주유시설</b> 시설 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콜탑, 나이트는 8㎡ 당 1명	<b>주유시설</b>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콜탑, 나이트는 10㎡ 당 1명		<b>집합금지</b>
<b>판매업종</b> 시설 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b>판매업종</b> 시설 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면실 이용금지	<b>판매업종</b>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b>숙박시설</b>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b>숙박시설</b>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b>숙박시설</b>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b>이벤트</b> 시설면적 6㎡ 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b>이벤트</b> 시설면적 8㎡ 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광명시, 새학기 안전한 급식 제공 '학교·유치원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실시



광명시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6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광명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학교 급식소 살균소독제사용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최소 전·후 손 씻기 ▲학생 간 접촉 최소화(칸막이 설치, 피아얏기 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자재(채소류 등) 현장에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과 검사원 직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대비 증가함에 따라 식재료 보관·유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 광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광주시는 가을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일환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을 점검하고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안의 구역을 말하며, 표지판은 구역 내 학교 정·후문 근처 및 학교로 이어지는 도로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광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46구역 54개교이며, 구역 내 설치된 표지판은 69개이다.

이번 표지판 정비사업은 6월24일부터 8월18일까지 약 8주간 진행했



으며 금년 신설학교 2개교에 3개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표지판 중 유실되거나 훼손된 표지판 41개를 확인하여 교체했다.

신동현 광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인지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이 판매되는 것을 막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 홍성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집중점검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 적발된 농지법 위반 행위에 행정조치

성도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도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외 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 및 농막, 성도,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 현황을 확보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경기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 집중 수사... 하천오염 사전 차단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노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하며 강력히 단속한다.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

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 성남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돌봄 공백 제로화 실현,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선도적 추진

성남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이번 인증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인증 로고 사용권을 갖는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해외 협력사업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11세부터 18세까지 5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을 8세부터 18세까지 6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70개 초등학교 4, 5학년생 1,892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교육 대상을 순차적으로 저학년까지 확대해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앞장선다.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까지 32개소로 늘리고, 지난 6월 설치된 관교대장초등학교 내 학교돌봄터 등 공공돌봄 영역을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01개소로 늘리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했고, 지난 7월 전담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도 꾸렸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아동학대 조사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적극 대처해 나간다.

이외에도 이달 내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2019년 3월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전담

부서 개편,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 2년간 유니세프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2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시장과의 인터뷰를 거친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최종 인증 결과를 통보 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 구조 구축이 특히 눈에 띄고,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우수 사례라 평가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며, "상위단계 도약을 위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안산시 홍보영상

## '아이고~안산'... 반응 터졌다!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안산으로 와!",

이희문 IGO 안산

특히 영상과 함께 나오는 'I GO'라는 노래는 경기 소리꾼 이희문 씨의 간드러진 음색으로 영상을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안산시 홍보대사인 이희문 씨는 서도민요 '자진아리'를 편곡한 본인의 곡 'I GO'를 개사해 볼거리 많고 재미있는 도시 안산으로 가자는 뜻의 'I GO 안산'을 탄생시켰다.

직접 노래까지 부른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안산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가볼만한 곳도 많고, 생기 넘치는 도시 안산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직접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중독성 강한 노래와 영상이 너무 신난다", "안산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확인했고 코로나가 끝나면 꼭 다녀오고 싶은 도시다"는 반응과 함께, "관광사에서 이런 홍보영상을 만들었다는 놀란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적극행정이다" 등의 소감을 댓글로 나타냈다.

안산시는 유행보다 형식을, 효율보다 절차를 중요시했던 기존의 제작방식을 탈피한 것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주요했던 것 같다는 설명이다.

유행하듯 안산시장은 "안산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 알려진 안산의 관광명소와 잠재 방문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산의 모습이 묻어날 수 있게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기분에 충실하되,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양질의 홍보로 안산시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고, 한 번 와 보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 'I GO' 브랜드 홍보영상은 안산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중으로 30초 분량의 압축영상을 만들어 TV광고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정부/기자

# 고양시, 플라스틱 분리배출하면 지역화폐로 바꿔준다

고양시가 지난 26일 대화동 장촌 초등학교 후문 부근 단독주택 지역(대화동 2273-5번지)에 고양 자원순환가게를 열었다.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참여마을 공모에 선정된 대화동의 '클린 365 대화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가게는 올해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3:30부터 16:30까지 운영한다. PET(무색PET, 유색PET, 판PET)와 플라스틱류(PE, PP, PS, OTHER)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한 후 5,000포인트 도달시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 5,000원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무색PET는 크기 상관없이 1개당 10포인트씩, 유색PET, 판PET, 플라스틱류(OTHER)는 1kg당 50포인트

트씩, 플라스틱류(PE, PP, PS)는 1kg당 100포인트씩 적립할 수 있다. (주후 보상 포인트는 변동될 수 있음)

이용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놓아처럼 재밌는 것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재활용품은 가능한 깨끗이 쉬운 병류 등을 제외하고는 불투명 마대가 아닌 투명 병투에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 광명도시공사, 일회용품 없는 사무실 만들기에 앞장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봉사 단체 '나눔벙봉사단'은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공사 본부 및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나눔벙봉사단은 기후위기상황 속 일회용품 소비문화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사무실 만들기에 나섰다 밝혔다.

나눔벙봉사단 단원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개인 머그컵, 텀블러를 마련한 후 사용인증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했고 일부 단원들은 배달 음식을 대화용기에 담아 오기까지 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으로 일회용품 없는 사무실 문화가 공사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 수지 '용인 새로일하기센터' 격려 방문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위한 상담·교육·사후관리 등 제공... 지난 9일 개소

백군기 용인시장은 31일 수지구 평생학습관 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유영호 도의원, 장정순 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센터 개소로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직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에 선정돼 수지구 풍덕천동 평생학습관 1층 380㎡에 상담실, 교육실, 사무공간 등을 갖춰 지난 8월 9일 개소했다.

센터장, 행정직원, 상담사 등 7명이 상주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교육, 사후 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9월부터 세무회계 실무와 직업상담사 양성 과정 등 2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 영통구, 추석명절 이웃사랑 나눔운동 전개

## 나눔과 참여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이웃과 함께하는



수원시 영통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8.26부터 9.22까지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다 함께

보내자는 차원에서 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기업, 공직자 등에 이웃사랑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통구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나눔방 개설, sns 등을 통해 이번 추석명절 집중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관련단체, 지역주민들이 기부해주신 성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영통구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기부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부참여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화성시 서남부 '친환경·스마트 물류단지' 개발 착수

화성도시공사는 27일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조성하는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엔미개발 컨소시엄'(물류 : 유엔미개발 외 3개사, 건설 : 호반건설 외 1개사, 재무 : 미래에셋)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 종합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발맞춰 경기도 서남부 지역 난개발을 예방하고 부족한 물류시설을 집적화하며, 코로나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사업규모는 약 65만㎡의 부지에 사업비 약 2,30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서,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강력히 추진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IOT기반 단지 관리 등을 접목한 친환경·스마트 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사업 대상지는 서해안복선전철 송산역 컨테이너화물야적장(CY)과 연결하고 송산그린시티 동서 진입도로, 국도 77호선,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IC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복합물류 거점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체 심의절차는 전문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는 앞으로 '유엔미개발 컨소시엄'과 신속한 사업추진, 공공기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약 1,400억 원, 부가치유발 효과는 약 430억 원 및 취업유발효과와 약 1,000명으로, 저렴한 가격의 물류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 물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류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거점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조성사업,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제17회 창의캠프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영유아발달연구소(창의인재 연구실)의 주최로 오는 10월 7일 제 17회 일일 가족 창의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창의캠프는 '숲속에서 만나는 동화 속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유아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공연을 시작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동화책을 각색하여 직접 준비하는 다양한 수업들과 활동, 동화 속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인형극 등 유아들이 숲체험을 하며 다양한 동화를 탐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창의캠프는 성주산 등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행된다. 동지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놀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3월 서울신학대학교와 부천시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유아교육과 학과장 송규은 교수는



"우리대학은 창의적인 교사양성을 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현장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부천관내 유아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유아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 여주시, 광주·이천·여주·원주 4개 시 단체장 통일부장관 접견



## 통일부장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보겠다"

(GTX-C)이 직결되어 남북철도(수서~거제, 수서~부천), 동서철도(수서~강릉)가 환승 없이 여객 및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되어 남북통일 및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과 접속부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즉, 남북철도망이 GTX-A와 C의 삼성역을 중심으로 수서~서울역~과주~신의주(경의선),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경원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GTX-A 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서역 일원 접속부 설치 필요하다"며, 통일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4개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환승없이 물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욱기자

여주시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접견실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 신동현 광주시장, 권금섭 이천시 부시장, 원주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GTX-A 노선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GTX-A 노선 수서역 일원 접속부 설치를 건의했다

이날 브리핑을 실시한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는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의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GTX-A)과 경원선

#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한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200원, 120ℓ는 6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채워진 전용 용기에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2개 종류의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를 사다 붙인 뒤 배출해야 성남시 청소 업체가 수거해 간다.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대상은 378개 단지(18만3000가구)다.

납부필증 종량제는 정액제와 달리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하고,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가구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종량제 기기(RFID)를 도입할 계획이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이다.

내년부터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는 종량제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

존 공동주택엔 설치비 약 200만원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행 정액 부과제는 아파트 평형별, 가구별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이어서 환경부가 2013년 6월 시행 지침으로 전면 금지했다"면서 "성남시는 조례 개정(6.21)을 통해 정액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단계에서 점차 종량제 기기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성욱기자



# 가평인들이 만들어내는 꿈의 무대, 'G-SL Citizen' 개최



공연 관람을 원한다면 기존 G-SL 관람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카오톡 '음악역 1939' 채널에 친구 추가 후, 공식 계정에서 공연 안내메세지가 전송되면 신청 문자를 보내 관람 예약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G-SL Citizen에서 화려한 재즈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 조수아재즈밴드의 김정오 참가자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음악 공연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가평군민을 위한 음악 공연 기회가 생겨서 참가하였다. 이번에 진행될 G-SL Citizen을 통해 많은 음악인들이 교류하는 장이 생겼으면 한다."며 참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낼 공연을 통해 음악역에 폭 넓은 재즈음악이 더 많이 들렸으면 하며, 다른 시, 군민들도 와서 음악역에 찾아와서 음악을 통해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공연이 펼쳐질 음악역1939에 대한 애정 또한 드러냈다.

가평군 지역 내 음악애호가들과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만들어내는 'G-SL Citizen'이 9월 4일부터 3주간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음악역 1939 M Station(실내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G-SL Citizen'은 음악역1939에서 작년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인 공연프로그램 'G-SL(가평 Saturday Live)'의 또 다른 형태로, 기존 공연과는 달리 음악을 사랑하는 가평주민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 선정된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G-SL Citizen'공연 참가자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최종 23팀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팀은 첫 공연일인 9월 4일부터 3주간 주말동안 기타, 클라리넷 등 각종 악기 연주부터 브라스밴드, 디스코장구,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음악역1939를 직영하고 있는 가평군은 "G-SL Citizen은 가평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이자 앞으로 있을 가평군의 다양한 축제의 서막이 되는 만큼, 가평 군민들에게 공감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선사할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시흥시, '우리시 행복의 무게는?' 2021년 시흥시 인구정책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를 형성하고자 인구정책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포스터 총 75점이 접수됐다. 시는 1차 심사로 특별제안 실무심사위원회를 꾸려 75건 중 30건을 선정했고, 2차 심사로 특별제안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전문위원 7인이 30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최종 순위 15점을 선별했다.

▲최우수상은 "행복의 무게"라는 제목의 작품이 선정됐고, ▲우수상 2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 "날아보면 가장 '잘한 일'", ▲장려상 3건에는 "다 같이 키운 아이, 다가지 시흥아이", "아이보다 돈이 중요하십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 ▲노력상에는 "사회는 'I'가 필요합니다" 외 8건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 정책을 넘어 '삶의 질' 제고라는 인구 정책의 어려운 숙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전국대회로 열렸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가족과 서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50만 대도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포스터 당선작을 시흥시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시 홈페이지, SNS, 미디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고, 결과 공고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종균기자

원종균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 경주시, 쾌적하고 안전한 클린도시 향해 잔걸음...

##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등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에 나서

경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수거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급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주시가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질적 쓰레기 분리 배출 문제 해결 위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경주시는 적절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적 단독주택 등에 거점 배출시설인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전격 설치했다.

읍·면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장소가 마땅치 않은 탓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환경을 크게 훼손해 왔으며, 일부 마을에선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며 공기를 오염시키고 산물 등 화재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집하장은 가로 5.5m·세로 2.5m 크기로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플라스틱·캔·병 등 10종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다.

집하장 설치로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분리수거가 어려웠던 폐형광등·소형폐가전·폐전지 등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수거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에 설치를 시작해 8월말까지 40여 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60여 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부지가 협소해 공동집하장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동천동·성건동·선도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소규모 빌라와 원룸 등 주거 밀집지역에 10월까지 150여개(지역별 50개)의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설치된 수거대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 대표가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만들기】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

화시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 바 있다.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kg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으로 스페농약용기류는 kg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오르는 등 각각 50원씩 인상됐다.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 소진으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주시가 보조금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와 농업유통과로 이원화돼 있던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체계 또한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불법 생활쓰레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 위해 다양한 지원·홍

보사업 추진】  
수거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생활쓰레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환경 취약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며 깨끗한 골목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홍보활동은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르기고 있다.

또 이·통장과 환경미화원들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으로 위촉해 담당구역 책임제를 통한 지역 밀착형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고장식 감시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올 연말까지 64대 추가 설치해 불법투기 감시원들과 함께 주기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참여인원을 기존 345명에서 690명으로 늘리고, 사업기간은 8주에서 10주로 연장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생활쓰레기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며, “생활쓰레기 종합대책 추진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경북 2021년 양성평등주간



### ‘더 좋은 세상, 평등을 향해’ 슬로건

구미클럽 회장, 조은희 대한미용사회 영주시지부 회장, 김미자 문경시 재향군인회여성회장, 강옥숙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황영옥 영덕군 재향군인회여성회장이다.

이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최인희 소비자교육중앙회북화군지회장 등 17명이 양성평등진흥공공 도시사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이번 양성평등주간에 비대면 문화 행사를 개최해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내달 3일 하루 ‘함께해요! 양성평등 공감콘서트·포럼’을 연다. 오전에는 ‘기업과 함께하는 공감콘서트 양성평등 고(Go)! 고(Ho)!’, 오후에는 ‘경북북도 양성평등 속!속! 포럼’을 개최한다.

‘기업과 함께하는 공감콘서트 양성평등 고(Go)! 고(Ho)!’는 직장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가 및 관련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성공 사례와 앞으로 기업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패널들은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한 도민 40명 정도가 함께 온라인 영상회의 형태로 참여한다.

이어 열리는 ‘경북북도 양성평등 속!속! 포럼’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는지 진단해 보고, 실천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고교생 대상 ‘양성평등 퀴즈대회’결과와 23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슬로건인 ‘더 좋은 세상, 평등을 향해’처럼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돌아보고, 남녀 모두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장욱현 영주시장·이영호 시의장, 김부겸 총리 만나 각종 현안사업 건의

## 영주댐 준공,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출발 등 현안사업 건의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이 지역의 미래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욱현 시장과 이영호 시의장은 영주의 미래 발전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출발, 점촌-영주간 복선전철화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적동-상방)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장 시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철도 사업 추진과 배어링국가산단 조성이후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도로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장 시장은 이 의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영주댐은 당초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아 영주댐 주변 추진사업이 멈춰있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2021년 연내 준공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영주에서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댐 준공과 철도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모두가 지역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이다”며 “정부와 철도공



사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영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 김천상무, 서울이랜드전 전 좌석 8,000원 티켓 오픈!



김천상무가 9월 4일 홈경기에서 테이볼 석을 포함한 가변석 전 좌석을 8,000원에 오픈한다. 이번 홈경기에서는 가변석만 오픈하며 일반석은 휠체어 석만 운영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30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6시 30분 김

천중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1’ 28R 서울이랜드FC와 홈경기 온라인 예매를 시작했다.

가변석(T/W/N구역)은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김천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천시인 자)은 3,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문화누리카드 40%할인, 축덕카드(신용) 5천원, 축덕카드(체크) 3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민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1956년생 까지), 장애인, 미취학 아동 또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예매 가능 구역은 가변석(테이블석 제외)이며 온라인 예매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온라인 예매 수수료 1,000원은 본인 부담이다. 온라인 예매 후 현장 매표소에서 증빙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전 좌석은 1인 4매까지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경기 당일 현장 구매는 불가능하다. 만 65세 이상(1956년생까지)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 구매 및 전화예매가 가능하다.

김세기기자

# 구미시,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낙동강 체육공원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운영

구미시는 최근 목욕탕,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 3곳을 추가 설치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임시 선별진료소는 8. 30부터 9. 30까지 한달간 워킹루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평일 10:00~16:00 까지다.

구미시는 이번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로 구미·선산보건소 포함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되며, 아울러 차병원, 순천향병원, 강동병원의 3개 민간병원과 협약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체전을 한 달 여 앞둔 구미시는 「특별방역 강화대책 주간」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등 방역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활동성이 많은 20~30대 청년층, 외국인 등 시민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해 지역 내 감염원을 신속히 찾아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코로나 위험집단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면서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시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남궁영기기자

# 이승을 청도군수, 동창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상지 현장방문

이승을 청도군수는 지난 25일 지방하천인 ‘동창천 구간’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와 공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동창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시 집중호우와 운문댐 방류 때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청도읍 내호리에서 금천면 임당리의 하천 길이 27.1km의 3개 지구이다.

이 사업은 자연재난 및 침수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되며, 오는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별로 「매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청도읍 내호리~매천면 지전리 구간으로, 사업비 380억원이 투자되며 하천정비 길이 8.8km 및 교량 3개소(우명교, 구촌교, 중남교)를 개체 및 송상하고,

「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매천면 내리~호하리 구간으로, 사업비 442억원이 투자되며, 하천정비 길이 8.3km 및 교량 2개소(가례교, 동화교)를 개체하고, 펌프장을 2개소 설치하며,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매천면 동산리~금천면 임당리 구간으로, 사업비 482억원이 투자되며 하천정비 길이 10km 및 교량 3개소(매전교, 새들교, 임당교)를 송상 및 신설,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매천면 내리 주민 김OO씨는 “중남



교가 노후화되고 교통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 교량 설치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위치에서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했고,

금천면 임당리 주민 이OO씨는 “임당교의 경우는 대형차량 이동이 잦아, 주민들이 다리를 건널 때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번 교량 설치시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이번 동창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가 1,3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큰 사업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노후화된 교량의 재설치부터 하상정비까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군민이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 편백향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초록빛 공간 사천케이블카자연휴양림개장

##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의 길라잡이

편백향 가득한 초록빛 힐링공간인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착공 3년 만에 드디어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했다.

사천시는 27일 오전 10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김현철, 박정열, 황재은도 의원, 이삼수 의장등 (4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은 테이블 커팅, 표지석 제막, 기념식수, 사전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67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3년 만에 완공된 자연휴양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일반 공개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돌입했다.

사천시 실안길 242-45(실안동 3-4) 일원에 위치한 39.4ha 규모의 자연휴양림은 수령 (40)년 이상의 편백림 군락지가 형성돼 삼림육을 하기에 적합하다.

자연휴양림에는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에서 자리잡은 숙박동(22실), 캠핑이 가능한 야영데크(15개소), 샤워시설을 갖춘 야영센터 등이 조성돼 있다.

그리고, 탁족장, 어린이 물놀이장, 숲 놀이터, 숲 탐방시설(1.2km)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설치돼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20ha에 이르는 편백숲에서 수만 그루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숲속 탐방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조망과 함께 힐링공간을 제공한다. 숲속 탐방로는 자연 친화적인 야자매트와 휴길로 구성된다.

숙박동은 2-4인/11실, 6-8인/5실, 10-12인/6실 등 모두 22실로 조성돼 있는데, 예약은 통합 예약시스템 숲나들e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기준에 따라 객실의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입장료는 1일 기준으로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400



원이고, 20인 이상 단체인 경우 어른 8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200원이다. 단, 동절기(12월~2월)는 입장료 면제이다.

숙박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을 중심으로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등을 감안해 이용요금이 각각 달라

진다. 입실은 오후 2시, 퇴실은 오전 11시이다.

2인실(최대 4인) 숲속의 집(A형, B형, 장애인)은 1일 기준 비수기·주중 7만원, 성수기·주말 10만원이고, 6인실(최대 8인) 숲속의 집(C형)은 9만원, 12만원이다. 10인실(최대 12

인) 산림휴양관은 12만원, 17만원이다.

4인 야영데크는 1일 기준 비수기·주중 1만5000원, 성수기·주말 2만원이고, 6인 야영데크는 2만5000원, 3만원이다.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다.

사천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등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 이용료에 한해 20% 할인 받는다.

그리고, 숲사랑지도원, 한국술사랑 청년단 단원,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등에게도 2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각산(해발 408m)은 도심지와 연결된 조그마한 산으로 산벚나무, 진달래 등 예쁜 꽃

으로 물든 풍경이 수채화가 연상될 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그리고, 수령 40~50년생의 편백향 가득한 편백숲은 각산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주위에는 사천8경 중 제1경으로서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전국에서 유명한 창선-삼천포대교도 있다.

각산 정상부 케이블카와 사천의 명물중 하나인 실안낙조 또한 절경이 뛰어나 인기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양림, 편백향 가득한 초록빛 힐링 휴양림"이라며 "사천 바다케이블카, 아쿠아리움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메가시티, 제도정비·재정지원·권한이양 필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울산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 참

석해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의 공동협력사업과 계획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 제도 정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 지원,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정 기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17일 국가선도 광역철도사업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선정되는 등 이미 성과가 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망과 환승합인체계, 배후-연결도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한 하 대행은 "특화사업, 가시적인 선도사업을 신속하게 확정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각 분야별로 민간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nn과 ubc, (사)동남권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은 'next normal! 부울경 메가시티!'란 주제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을 비롯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역 경제인들이 참석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영상을 통해 메가시티의 성공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3인의 시도지사는 ▲다양한 자원 공유·확대, ▲미래신산업 공동 발굴·육성, ▲경제공동체 구축, ▲메가시티 비전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낭독하고 '부울경 경제 원팀(one-team)'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김사열 균형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초강연과 니사카 요시노부 간사이광역연합장(현와카야마현지사)의 영상 인터뷰, 메가시티와 경제공동체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지역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좌담회 등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오는 9월 3일 오전 9시 10분, knn과 ub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 울산과학관, '울산생명의 숲 버섯탐구회'



전시회는 '울산 공원의 버섯'이라는 주제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하1층 코스모스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울산생명의 숲 버섯 탐구회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발굴해온 버섯 사진 70여점을 선보인다. 울산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울산 공원의 버섯을 탐구하고 기록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섯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전시된다.

2016년에 3월에 창단된 울산생명의 숲 버섯탐구회는 울산의 산과 습지일원의 버섯을 연구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활발

히 해오고 있으며, 울산의 버섯 포스터 제작 및 야생버섯도감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버섯탐구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로 얼마나 다양한 버섯이 우리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관의 갤러리 초대전시회는 과학·예술 융합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매월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울산과학관을 방문하는 학생,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기현기자

##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주제로 성폭력 예방 캠페인 열어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27일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하룻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동아리 '청.지.기' 회원 중 11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또래 친구들에게 청소년 성문화 활동을 펼쳐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청.지.기'는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다.

특히, 성폭력 및 포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은 물론 사춘기, 성지식,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퀴즈대결로 흥미를 더했다.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는 '학교에

서의 성인권교육' 사업 참여 학교로 학교 보건교사 및 센터 전문강사가 1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기본 교육 및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은 건강 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2013년부터 9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기관 및 단체, 가족 단위의 성교육에 대한 문의·신청을 받고 있다.

강영훈기자



## 금정구, 라라라 페스티벌도 '메타버스' 탑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가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비대면 축제를 연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제5회 라라라 페스티벌을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부터 개최된 '라라라 페스티벌'은 온전한 일원에서 다양한 빵과 커피 등을 문화행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축제를 열지 못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분산 개최 방식으로 올해 축제를 기획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라라라 페스티벌 행사장을 실제처럼 구축한 뒤 아바타 모습의 방문객이 자유롭게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관람하고 업체와 소통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장년 세대의 행사 참여를 위해 '모바일 스템프 투어'를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단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 기간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축제 참여를 원하는 관내 커피, 빵 등 디지털트 제조·판매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금정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축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이 힘을 얻고 주민들도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축제상을 실현해 금정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라라 페스티벌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개최 기간 및 행사 진행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남궁영기자

## 함안자원봉사센터, 백신접종센터에 '서부공감 안녕키트' 전달



함안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봉사자들과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백신접종센터에 '서부공감 안녕키트' 2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서부공감 안녕키트'는 한국서부발전(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함안군자원봉사센터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안녕키트는 에너지바, 비타민, KF94 마스크, 쿨스카프로 구성됐고, 백신접종 지원봉사자와 백신접종센터 의료진 200명에게 전달됐다.

안녕키트를 전달받은 봉사자는 "4월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센터 봉사활동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안녕키트 등 응원과 격려를 받으니 힘이 난다"며 "봉사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군자원봉사센터 이영학 센터장은 "백신접종센터에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정읍시(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 촬영지원 업무협약체결



영화를 통한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산업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와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지역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27일 (사)전주영상위원회와 영화제작 유치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감독 박흥식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와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 유치 지원과 영상 관련 인재 육성, 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됐다.

그간 전북 시·군 로케이션 촬영과 영상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계를 통

한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을 다지고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영상물이 정읍에서 제작·촬영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과 유치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영상산업 홍보와 촬영지 지원 등 영화 촬영 유치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힘을 기울인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영상물을 통해 아름다운 정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영화를 통해 정읍의 주요 관광명소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영상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관광명소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KBS2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경찰수업’ 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은기자

# 부안오디, 정관장 굿베이스 제품 출시



부안군과 KGC인삼공사는 지난 5월 28일 고품질 원료 생산과 안정공급, 관련제품 개발과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재배부터 수확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선별한 고품질 원료를 사용했다고 자부한다. 부안 참뽕오디는 지리표적지 107호로 등록된 인증원료로 제철에만 구매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품질의 건강한 원료로 시작한다는 굿베이스 브랜드 철학에 기반하여 부안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부안군과 KGC인삼공사는 고품질의 오디 안전생산과 공급을 위해 지역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와 공동 홍보를 통해 농가와 기업, 지자체가 상생하도록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태기자

# 남원에서 잘 살기 위한 필수 지침서!!

남원시가 남원살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한 남원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남원시는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정보제공 뿐 아니라 각종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소개해 전입자가 남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남원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62쪽 분량으로 남원시의 역사와 인구, 상징뿐만 아니라 결혼·임신·출산, 보육·교육, 기업·일자리·청년, 귀농·귀촌, 노후, 교통·문화·복지 6개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최신 생활정보 등을 사진과 결들여 알차게 담고 있다.

특히 출생 축하금전입지원귀농·귀촌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과 함께, 대중교통병의원, 약국무인민원발급·도서관일자리사업·평생학습 프로젝트

램 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남원생활 가이드북이 남원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신 분들에게나 남원오로의 정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낯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 4,400부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전입을 원하는 희망자와 시민, 그리고 재외향우 등 남원살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카드 수수료 0%

###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9월 중 시행, 가맹점 모집 중

익산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디지털과 만나 더욱 편리해진다.

특히 시민들은 카드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해 편리해지고 소상공인들은 신용 카드 수수료가 0%대로 줄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둔다.

시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을 기존 ‘다이로움’카드형에서 휴대폰에서 QR코드를 찍는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다이로움 카드는 지난 24일 기준 가입자 115,689명, 발행액이 1천877억원을 돌파해 지역 내 소비지출에 따른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 소비자들에게 다이로움 카드 발급과 소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다이로움 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결제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면 기존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를 소비자의 핸드폰에서 간편결제 앱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에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다이로움 충전금액이 가맹점 대표의 연결계좌번호로 직접 이체되는 간편 결제방식이다.

현금이체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천877억원 규모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다이로움 카드’에 대한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 수수료 0%대로 낮춰 경영 부담을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는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가맹점 수수료가 0%이고, 12억원 이하는 0.3%로 큰 폭으로 낮춰진다.

모바일형 간편결제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모바일 간편결제 모집공고에 따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착한페이(익산다이로움) 회원 가입 후, 가맹점 모드에서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착한페이 가맹점 모드에서 가맹점 신청한 870개소 및 추가 모집된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및 안내문 등을 1차 제작, 배부하고, 9월 중 본격

적인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방식을 시행한 후 점차 모바일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이로움 운영대행사인 (주) KT의 블록체인 기술, 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 활용 및 금융협력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익산시청 임시청사 일자리정책과를 상시 운영하여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다이로움 제외업종 결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일명 ‘깡’) 등으로,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다이로움 모바일 간편결제방식 도입이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로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이로움의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 전주시, 지도 보며 놀이터도시 전주 여행 ‘야호~’

### 전주시, 기존 놀이터 지도에 책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해 ‘전주 야호놀이터 지도’ 제작



아이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종류의 놀이시설에 찾아가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터지도가 만들어졌다.

전주시는 기존 ‘야호놀이터 지도’에 최근 추가로 조성된 놀이터와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테마별 놀이터, 기타 아동 관련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한 ‘전주 야호놀이터 지도’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야호놀이터 및 놀이시설의 정보를 담은 야호놀이터 지도는 오는 9월 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도 비치된다.

야호 놀이터 지도에는 전주시역 곳곳에 위치한 △생태·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예술놀이터 △책놀이터 △야호학교 △장난감도서관 △물놀이터 △정수년수련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무장애 통합놀이터 등 116개소의 위치 정보가 표기됐다. 이와 함께 공원 놀이터 160여 곳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표기됐다.

특히 시는 지도 뒷면에 모든 놀이시설이 테마별로 분류되고, 놀이터별 위치와 시설 사진, 이용시간, 전화번호 등을 수록해 이용하고 싶은

놀이터 테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호 놀이터 지도는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나 종이지도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는 다양한 놀이터 조성 및 놀이터 환경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맘껏 떠돌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들이 맘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 도시 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고창의 생태자원, 지역청소년이 만든 웹툰으로 만나요”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소속 환경동아리 ‘푸르미’가 고창의 깨끗한 생태자원을 주제로 참신한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에 화제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푸르미’는 지역 청소년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간 웹툰 작가(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와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4~8칸 정도 분량의 만화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서 웹툰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특히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람사르 운곡습지 멸종위기 수달, 대추방울토마토, 수박, 장어) 람사르 운곡습지 설명자료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철환(성내초6) 학생은 “저만의 만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좋았다. 고창에 대해서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웹툰과 고창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만화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라며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웹툰으로 그린 고창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익산 도심 수변공원, 코로나19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술술 부는 가을 바람, 반짝이는 야경, 물명 산책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도심 수변공원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 동산동 일대 대간선수로는 해 질녘 노을과 야경이 예뻐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날 광활지 보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상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도심 속 수변 공원을 찾기 시작했다.

동산동 유천생태습지와 대간선수로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도심 속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메타세쿼이아 산책로가 시작되는 동산교부터 행복복지센터까지 대간선수로만 770m 구간이 ‘강결’으로 흐르는 금빛, 은하수로가 펼쳐진다. 보행테크와 농로에 블라드등, 감성글라스조명, 물방울조명, 별자리조명, 교량조명 등 경관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확보하고 야간경관을 연출했다. 반짝이는 인공 아파트 불빛이 더해져 멋진 야경으로 시민들이 사랑받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노후된 옹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메타세쿼이아숲과 수로, 너른 들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산책길 중간중간에 쉼터도 인가다.

100년 된 근대유산인 동산동 대간선수로 경관 디자인을 입혀 시민들이 쉬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더욱 뜻깊은 곳이다.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신흥저수지 일원에 마련된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이다.

신흥공원은 지난해 국화, 핑크몰리, 억새 등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약 1km의 산책로와 2천200㎡ 규모의 야외광장, 조경 속에 여름과 가을의 정취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최근 ‘행복정원’이론 산책로를 정비하고 임시광장 내 미로정원과 약 0.5km의 산책로(둘레길)가 더해졌다.

특히 새로 추가된 산책로를 통해 저수지 안쪽으로 이어져 있는 숲속 길을 걷다 보면 확 트인 신흥저수지를 감상하며 잔잔한 ‘물명’ 산책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힐링을 선사한다.

수변공원의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 도심에 인접한 익산 춘포 만경강길은 생각보다 가깝다. 만경강 제방길을 따라 가을 바람 맞으며 타는 자전거가 일품이다.

만경강 산책 독길시작은 익산시 춘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춘포지구에서 목천대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달려 보면 아직 여름 끝자락의 신록과 초가를 바람이 만나는 상쾌함을 맞을 수

있다. 수변공원과 축구장, 제방 잔디공원과 쉼터 등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가 가득하다.

올해는 ‘만경강 하류 반월·마산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상반기 완공돼 제방보축 3.5km, 하도정비 6.7km,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4.0km,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9개소), 초지조성·조경공사 등이 추진됐다. 가을이 깊어지면 은빛물결 여색 길에 장관인 만경강 일대가 시민들의 쉼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더욱 사랑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의 수변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결실을 맺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쉼을 선사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해남 코로나19 대응 현장 살피

# 장흥군, 장흥의 금색 보물 “장수상항버섯”

### 지역감염 확산 차단 위해 긴급 점검... 선제검사 등 총력 대응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해남군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살피고, 선제 검사 등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최근 해남 송지면에서 다방·주점 등을 통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7일 다방, 주점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영업주, 지역 주민 등 총 17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모두 같은 감염 경로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확진자 동선 파악, 밀접접촉자



126명 분리, 지역주민 5천443명 선 수 검사 등 강도 높은 역학조사를 벌

이고 있다.

또한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연일 코로나19 최정점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민들께서 안심하도록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지역사회 추가감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장흥에서 생산되는 상항버섯은 훌륭한 품질과 효능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상항버섯은 베타글루칸성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항암, 면역 활성, 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로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상항버섯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해 주고, 염증성 아토피 및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하할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액 순환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 그 외 지혈 작용, 당뇨병·고혈압 예방, 소화 장애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

친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로 국내외 천연물산업 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장흥군이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전라남도지사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2030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장흥군은 전남에서도 연구기관, 산업화 시설, R&D 인프라 및 환경, 멸종, 차지기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선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의약품의 원재료인 차즈기와 버섯류를 농가-바이오기업이 계약 재배한다.

이를 통해 농가도 벼농사보다 월등한 신소득원을 창출하게 될 전망



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약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등 국가기관을 통해 지역특화자원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전라남도와 협력하여 블루바이오 6대 분야 중 하나인 블루바이오로 장흥을 천연의약산업과 지역 교류의 중심지로 가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 권오봉 여수시장, COP28 유치위 회의 주재... “반드시 유치”

# 장성군 동화JC~장성물류센터 국지도 연결 국가계획 반영!



COP28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COP28 유치위원회 제9차 정기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COP28 유치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는 류중구, 조세윤 공동자문위원장, 이상훈 운영위원장, 정석만 집행위원장과 의회 특위 전남도 강문성·경남도 정연석 위원장, 여수시 문갑태 부위원장 등 COP28유치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활동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내년도 유치위원회 사업계획과 COP28 유치 집중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에 관한 향후 계획과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참여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COP28의 사전 행사 격인 2021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 회의를 통해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COP28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보호 선도지역으로서 남해안 남중권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COP28이 반드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COP28은 2023년 11월에 열리며, 개최국은 금년 11월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개최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존의 인천광역시, 고양시, 제주도와 최근의 부산광역시까지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세되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COP28 유치위원회는 공동유치위원장(김영록 전남지사, 경남지사(직무대행), 권오봉 여수시장, 윤상기 남해안남중권협의 회장 하동군수) 4명과 고문, 자문위원, 12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장성군 동화면에서 서삼면 장성물류센터까지 이어지는 5.98km 길이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가 연결될 예정이다. 국도는 국지도 49호 도로 신설에 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1325억원(국비 860억, 지방비 465억)으로 물류비의 획기적인 절감은 물론, 장성중부권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지도 49호를 연장해 동화JC~장성물류센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동 거리를 9.1km 가량 단축시킬 수 있으며, 운행 시간도 2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09년부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동화JC~장성물

류센터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측에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한 바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속한 총 3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음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가계획에 포함되는 결실을 맺었다. 서삼면에서부터 광주·나주시까지 하나의 도로로 이어져 교통 편의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동화JC~장성물류센터 간 49호 국지도 연결로 물류비 절감과 교통 편의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성은 물론, 광주·전남 일대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필암서원 등 주요 관광지·명소의 방문 확대에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군 국지도 49호선 장성 동화-서삼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된다.

오홍관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광주 동구는 지난1동 마을사랑채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위기 아동발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모교육 이후 지산동 범원사거리 교차로에서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아동학대 유형, 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켓, 플래카드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동구는 앞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관내 조성된 마을사랑채에서 지속적으로 부모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학대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9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비전으로 ▲생활환경 ▲안전 ▲교육환경 ▲보건복지 ▲놀이권 보장 등 5개 분야 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천년전 이어온 길. 아름다운 영양.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빛  
편안한 밤하늘.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연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맛  
사뭇물과 이슬.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영양국제자연휴양림.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시계곡, 참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자연휴양림보통공원, 반달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충청남도, 백제 유산의 가치, 미래 세대에 전한다

## 29일 '2021 세계유산 축전' 폐막... 가치 전승 기념식·주제공연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7일간 개최한 '2021년 세계유산 축전'이 막을 내렸다.

도는 29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2021년 세계유산 축전의 폐막식을 열고, 백제의 찬란했던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치 전승의 자리를 마련했다.

양승조 지사와 문화재청장, 전북 정무부지사, 공주·부여·익산 시장·군수,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축전 영상 상영, 가치 전승 기념식,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17일간 펼친 축전의 순간들을 모아 만든 영상을 상영했으며, 미래를 이어 갈 아이들에게 백제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가치 전승 기념식 '찬란한 유산, 백제로 있다'를 진행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백제역사유적



지구에 속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예술인이 참여한 주제공연 '백제 1500년 찬란한 유산, 장인의 정신이 깃들다'를 함께 관람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행사

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에 세계 연속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으로 연 축전"이라면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맞은 올해 '백제문화의 진수'를 온 국민에게 알리며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도와 전북, 공주, 부여, 익산이 부흥했던 백제를 상기하며 하나의 백제로 협력하는 모습이 빛났다"면서 "코로나19로 참여 프로그램 등에 제한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고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공주, 부여, 익산 일대 유적지 8개소가 백제문화의 연속 유산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도와 전북도·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출연한 백제세계유산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축전은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주관하고, 5개 자치단체가 주최했다. 김원호기자

# 세종시, "다시쓰고, 바꿔쓰고, 고쳐쓰고, 함께해요"

## 9월 11일 제3회 세종자원순환축제 온라인·비대면 방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9월 11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제3회 세종자원순환축제'를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세종자원순환축제는 자원순환의 가치와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시와 시민, 환경단체가 손잡고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제3회 세종자원순환축제는 세종 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 YMCA자원순환센터, 마을과복지연구소, 마을기업 예코-루가 공동주

최하고 테트라팩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제작영상을 송출하거나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공동주택 장난감 수거·나눔 행사, 세종쓰담운 등 사전행사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자원순환축제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세종사회적경제포럼(자원순환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 자원순환 동아리대회 ▲도전! 자원순환 가족 골든벨 ▲문화공연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과 청소년 자원순환 동아리 경진대회, 자원순환패션쇼, 도전골든벨 등 부대행사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 채널 '세종자원순환축제'에서 시청 가능하며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축제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자원순환축제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며 "자원순환 체험, 문화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태백시, '지프 와일드 트레일' 주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짜릿한 오프로드를 즐겨라!"



태백시는 산악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최초 지프 와일드 트레일 행사를 주관한다.

시는 평균해발고도 902.2m로 대한민

원도에서 가장 짜릿한 오프로드 코스로 색다른 트레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태백시, 강원도관광재단 그리고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마케팅팀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매봉산 바람의 언덕, 운탄도로, 산악도로 등 25.933km의 길이에 달하는 새로운 코스로 준비된다.

최고 경사가 34.4%에 달하는 최고 난도의 코스 뿐 만 아니라, 청정 하늘을 벗삼아 은하수를 쫓아 달리는 함백산 일대의 야간 드라이브는 이번 트레일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프 와일드 트레일은 9월 9일부터 14일, 25일부터 26일까지 약 8일간 지프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신차인 랭글러 4xe 오토 등, 총 40팀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 그룹으로 나뉘어 참가한다.

4개의 코스를 모두 정복한 이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지도 라인과 등고선 등 트레일을 통해 거처온 여정이 새겨진 '트레일 인증 배지'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산악관광도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인 태백시는 지프의 첫 전동화 모델이자 친환경 SUV인 '랭글러 4xe' 출시를 기념해 추진되는 첫 번째 지프 와일드 트레일의 최적지로 '제로 에미션 프리덤(Zero Emission Freedom,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차)'을 지향하는 지프의 첫 전동화 비전을 실현시키기에 손색없는 최적의 장소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강원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강원도관광재단과,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에 도전하는 지프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태백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악 관광의 새로운 테마들을 지속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 속초시, 한계없이 함께'속초열린관광지 콘텐츠 홈페이지 개설

속초시가 '한계없이 함께'란 슬로건으로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속초 열린관광지 콘텐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사업은 속초관광홈페이지 내에 직관성이 뛰어난 별도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추진하여 제작하였으며 지난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속초시 관내 주요관광지 정보를 무장애여행의 관점으로 재검토하여 설악으로, 오감만족, 피로회복 코스 등 총 7개의 코스를 별도 관광 콘텐츠로 개발, 직관적인 코스 소개와 위치기반의 정확한 정보제공, 이동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아이콘 형태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문화·역사가 어우러진

속초 열린관광지 코스 안내를 통한 속초의 무장애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나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와 편의성을 고려한 페이지 구성 및 직관적인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 19 이후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여 소규모 여행 및 모든 세대가 함께 이동하는 가족여행에 특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여행정보를 제공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열린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개·보수 공사, 체험형 콘텐츠 개발, 비대면 수어 가이드 서비스 등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속초열린관광지 콘텐츠' 또한 속초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편리한 속초관광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금산다락원, 2021 온택트 금산아트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금산다락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1 온택트 금산아트페스티벌 예술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전MBC가 주관하며 △서양음악 성악(독창, 합창) △서양음악 기악(독주, 합주) △한국음악 판소리 △한국음악 기악(독주, 합주) △실용음악 가요 △발레(독무, 군무) △현대 무용(독무, 군무) △한국 무용(독무, 군무) △댄스(독무, 군무) 등 9개 분야로 진행된다.

접수는 금산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자격은 2021년 8월 1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과제곡은 5분 내외 1곡을 준비하면 된다.

예선은 오는 10월 16일 금산다락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심사 결과 본인 진출 팀을 선정하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공개 후 문자투표를 진행, 27개 수상팀을 결정한다.

시상식 및 본선 공연은 오는 10월 30일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 온택트 금산아트페스티벌 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나 대화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온택트 경연대회"라며 "코로나19로 단절돼가는 주민교류와 지역 문화예술계에 힘을

2021 ON-TACT 금산아트페스티벌 (예술경연대회) poster with details on categories, registration, and prizes.

김원호기자

# 추석 연휴에도 '광주 국악상설공연' 즐기세요

## 9월 한 달간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9월에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주공연마루에서 다양한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9월 1일 첫 공연으로 창작국악단 도드리 팀의 '가을의 문턱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대나무 향기가 몸과 가슴을 파고드는 선율의 국악관현악곡 '죽향풍월' 무대를 시작으로, 광주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국악가요 '아리랑 광주', 한국무용 '임춘소고'가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

우리의 선율 아리랑에 재즈적 화성을 가미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도드리 테마곡인 국악관현악곡 '컨템포러리 아리랑'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3일, 11일, 17일 등 3회에 걸쳐 해금중주곡, 대금·가야금 2중주, 관현악·연희 '판놀음' 등 아름다운 국악 선율을 전달하는 명품 무대를 꾸민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한가위 국악한마당'이 열린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팀이 '한가위 맞이 추콘서트' 주제로 기악합주, 전통무용 '교방임춤' 등을 공연하며, 풍년과 흥취 있는 삶을 담은 흥겨운 민요 '풍년가', 한가위 밝은 달 아래 동글게 손을 잡고 모여 춤을 추며 부르는 '강강술래' 무대가 한가위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외 22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 보존회가 '열씨구! 한가위' 공연이 마련됐다. 가야금병창 3중주 '동백'을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판국, 창곡 방아타령, 이연정무용단이 특별 출연해 민속놀이 강강술래를 각색한 창작 작품 '동동술래' 등 신명나는 공연을 선사한다.

추석연휴에 펼쳐지는 '한가위 국악한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귀성길에 오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방에서도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일정에 특별 편성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9월 한 달간 시립예술단과 우리 지역 예술단체가 국악을 주제로 매일 특색있는 공연을 준비해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휴관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무료)로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고정화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 경기도민과 성남시민들께 인사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있는 경기도의원 최만식입니다.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도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구요 여제가 말복이었는데 앞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 2020 도쿄올림픽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아쉽게도 종합 16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남다른 소회가 있다면 전해 주십시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도

수의 딸이죠? 기계체조의 여서정 선수가 수원시청 소속인데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유도의 안바울, 펜싱에페 단체전 송재호선수,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최수연, 서지연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사실 올림픽은 출전해서 기량을 뽐내고 관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메달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코로나19로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다보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관중들의 환호와 응원을 받지 못한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었던 조례제정이나 도정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써 가



그와 함께 시민들과의 남다른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면서 성남시를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입니다. 본회의나 상임위 모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를 얻으려면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교올림픽이 지난 8월 8일 폐막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16위의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하였습니다.

○ 먼저 코로나19로 훈련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든시기에 어려운 결정으로 출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신 선수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도쿄올림픽에 경기도 선수들은 9개 종목에 22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 성남시청 소속의 오상욱선수와 화성시청의 김준호 선수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고요. 여흥철 선

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경기도에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당 25만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기본소득'의 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

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예술인 창작수당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지금 문화예술분야는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인 창작수당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향후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예술인들이 생계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이 2%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문화예술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최소 3%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100%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는 도정활동으로 꼼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자신의 중심의 되는 정치신념은 무엇이고,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성남시민들에 대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많은 분들과 격 없이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간미가 넘치는 정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정치,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치가 경기도민들로부터 지지

있는 경기도민과 지역구 성남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를 위해 경기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는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전환의 시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영/기자



## 죽전역 에일린의 뜰

# 수원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등 4개 축제 개최

수원시가 9~10월 수원화성 일원에서 4개 축제로 이뤄진 '2021 가을 세계유산여행 힐링폴링 수원화성'을 연다.

가을 축제는 9월 24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로 막을 올린다.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인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일원에서 10월 24일까지 열린다.

정조의 사상인 '문·무·예·법'을 다채로운 특수조명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아트쇼로 선보이고, 행리단길 거리에서는 지역작가와 협업해 소규모 '신진작가 미디어아트쇼'를 열 예정이다.

10월 2일에는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인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시작된다. '수원화성, 의궤가 살아있다'를 주제로 하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를 활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록유산인 의궤(원행음묘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등)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주제 공연(목적역시: 필묵으로 띄운 만개의 달)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의궤속 장인 열전, 인문학 콘서트, 야간성곽 트래킹 등)이 수원화성 곳곳에서 10월 24일 까지 진행된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행사 기간 방역 기준에 맞춰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시와 온택트(온라인 비대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화성행궁 일원에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와 1964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수원화성문화제'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가이러쇼, 수원화성문화제). 워킹스루형(걸으면서 볼 수 있는) 야외 전시다.

수원화성 인문기행 프로그램인 '의궤탐구생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수원화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나이스 투 수원화성' 등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화성문화제의 백미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다. 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6~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하이라이트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상영하고, 시청자들이 정조대왕 능행차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온택트 능행차 체험키트(디폴블러, 부루마블)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축제의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수원화성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제6회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 5년 연속 부산 개최!

8.31.~9.1. 양일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6회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 개최

부산시와 (사)국제이스포츠연맹(IESF), 문화체육관광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제6회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GEES, Global Esports Executive Summi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는 이스포츠 및 각국의 관계자들이 세계 이스포츠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자리로, 이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2017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로 올해까지 5년 연속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스포츠 산업의 진화과 적응'을 슬로건으로 개최식, 세션 토의, 이스포츠 어워즈로 구성됐으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션 토의에는 국내외 이스포츠 산업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 '이스포츠와 전통 스포츠의 관계발전' ▲ '이스포츠의 다음 레벨' ▲ '이스포츠와 다양성' ▲ '이스포츠와 교육' ▲ '이스포츠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5개 세션을 다룰 예정이다. 해외 초청 연사는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하며, 사회자 및 국내 연사는 브레나 현장에서 참여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이스포츠 어워즈에서는 올해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선수, 팀, 게임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는 온라인 생중계되며 국문은 부산이스포츠경기장 유튜브 채널, 영문은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Socio 채널에서 누

구나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이스포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온라인으로 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과 이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도 '세계 이스포츠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 '이스포츠 메카도시' 부산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는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이스포츠연맹과 협력해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R&D)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등 이스포츠 메카도시로서 이스포츠 육성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영기기자



# 울산시, 창작뮤지컬 공연 출연 지역청년예술인 공모

오는 9월 10일까지 연기, 무용 등 2개 분야 10명 내외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창작뮤지컬 '태화강' '신(新) 처용가' 등 문화콘서트

텐트제작 뮤지컬 공연에 출연할 지역청년예술인을 오는 9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울산지역 청년예술인들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 새로운 울산의 시민 참여형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울산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일(8월 27일) 이전 울산에 주소지를 3년 이상 둔 청년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연기와 무용 분야이며 주 30시간의 연습 등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및 실기과제(영상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콘텐츠 제작공연인 창작뮤지컬 '태화강'은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기념공연으로, 창작뮤지컬 '신(新) 처용가'는 제55회 처용문화제에 특별공연으로 각각 막이 오른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울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산에도 기여하는 등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 용산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풍성'



서울 용산구가 양성평등주간(9월 첫 주)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구는 우선 양성평등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구청 2층 민원실 로비에서 상담(일자리·취업 분야), 홍보(여성친화도시 사업), 전시(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수상작) 부스를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찰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용산누리) 등이 함께 개최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최만식기자

# 보령 모산조형미술관, 노대식 조각전 '묘猫 한 이야기' 개최

보령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화예술공원 내 모산조형미술관에서 노대식 조각전 '묘猫 한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산조형미술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노대식 작가를 초청해 일상적인 삶 속 풍경을 고양이로 은유해 표현한 '근두운', '영웅', '만파식적' 등 총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 표현된 고양이의 모습은 감상하는 이들의 기억 속 주변인물이거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작가는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인간 풍경을 독창적인 표현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구체화했다.

특히, 근두운 위에 한가로운 세월을 낚고 있는 고양이, 만파식적을 가진 듯 보이다가도 방금 잠든 듯 평온한 표정의 아이를 업고 아슬하게 걸어가야 하는 고양이 등 작품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과 고단함에 대한 위로를 보내고 있다.

임호영 관장은 "여름의 끝자락, 노대식 조각전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조각의 숲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오묘한 이야기에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경북도, 청년의 건강한 독서문화를 위해 앞장선다

'경북 청년 독서문화 확산사업' 첫 스타트



경북도는 지역 청년들의 건강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 청년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청년 독서문화 확산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독서를 통한 심신치유로 코로나 블루 상황을 극복하고, 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함양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1989년 설립 이후 북콘서트, 독서토론회, 문학탐방 등 다양한 독서문화 조성에 이바지해 온 문화공동체 새 빛을 비롯한 국내 대형 전자책 기업과 함께 진행해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 청년 및 도내 소재하는 대학의 대학생 등 생활근거지를 지역에 두

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확정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책(e-book) 3개월 정기구독권을 제공하고, 독서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좋은 우수 참가자에게는 6개월 정기구독권을 추가 증정한다.

아울러 독서법 강의, 북 콘서트, 독서토론회, 경북도내 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부여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전자책과 북 콘서트 등을 통해 지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나도 그림책 작가' 운영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은 내달 24일부터 문화예술부와 협업한 '나도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도 그림책 작가'는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의 영감을 그림책에 반영하여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기획했다.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며,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3권의 그림책을 만들고 전시한다.

전시 일정은 11월 27일부터 2주간

바른샘어린이도서관 3층 전시 공간에서 전시하며, 전시 방법과 포스터, 소개글, 소감 모두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다.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장은 "어린이들이 그림책 창작을 통해 자신 스스로와 친구들, 주변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책에 대한 흥미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도 그림책 작가' 참여 신청은 내달 7일 아침 9시부터 바른샘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도서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정부기자

# 대구시, '2021 대구브랜드페스타' 참여업체 모집

###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후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행사 개최



대구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릴 2021 대구브랜드페스타(DAEGU BRAND FESTA 2021)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신세계백화점이 주관하며, 코로나19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대시민 소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과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우수산품을 홍보·판매할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작품 전시를 통해 축제에 있는 지역 문화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관사인 대구신세계백화점은 행사 참여 업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마케팅 전반의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8월 31일부터 내달 9월 12일(일)까지 대구시청 홈페이지(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6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직 E-mail로만 접수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판매공간 구

성 및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및 소상공인이다. 식품, 공산품, 의류, 액세서리, 핸드메이드 공예품, 한방,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 및 원데이클래스(공방) 등 50여 개의 지역 우수업체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민생경제과 또는 대구브랜드페스타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승원 대구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우수제품을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 사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 추석 특별전 열어

### 네이버 메인페이지 우측 '희망마켓' 배너 클릭으로 구매가능

경상북도는 경기침체와 추석을 대비해 네이버 쇼핑에 개설·운영 중인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에서 '추석맞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와 경제진흥원, 네이버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기획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극복 경북 소상공인 살리기'를 일환으로 추진한다.

온라인 진출을 어려워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네이버 쇼핑 채널에 입점 시켜 대표 우수 제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도 불어넣고 지역경기 회복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추석 특별 판매전은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아이디(ID) 1개당 할인 쿠폰 5천원 권과 1만원 권 각 2장씩을 제공해 최대 3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폰사용은 1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권, 1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1만원 권 쿠폰사용이 가능하다.

쿠폰 발급 수량은 총 약 4만 6000여개로 기획전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한정된 수량이니 만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

참여 및 구매 방법은 네이버 메인 사이트 우측 하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획전 페이지에 접속해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 페이지로 들어가 화면에 게시된 할인 쿠폰을 받



금 받은 후 온라인 쇼핑 구매·결제 시에 사용하면 된다.

한편, 희망마켓은 올해 5월에 개설해 현재 260여 개 소상공인이 입점해 리빙·식품·패션잡화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며, 도에서는 연말까지 400여 개 사까지 지속 확대·발굴해 지원 할 계획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산·판매하는 좋은 상품을 희망마켓을 통해 많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 지원

경상남도가 8월 30일부터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내내 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

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 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남 지역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17일부터 지급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으로 소기업·소상공인 8만4천 명에게 4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직접 지원했

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고 신청인의 99% 이상이 지원금을 받았다”며, “2차 신속지급 역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전남도,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전면 확대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시간 이내 생활구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시범 시행한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9월 1일부터 1천 320개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섬 주민은 여객선 운임 8천 340원 미만 구간은 1천 원, 8천340원 이상 3만 원 이하는 5천 원, 3만 원 초과 5만 원 이하는 6천 원, 5만 원 초과는 7천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만재도), 여수~거문도 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도 1천 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써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 등 7개 시군 177개 섬 주민 4만 9천18명이 병·의원 왕래,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됐다. 덩달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 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전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섬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8월부터 '1천 원 여객선'을 시범 도입했고, 2022년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호응이 높고 원거리 섬 주민의 권익을 적극 받아들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섬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강원도 화훼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강원도는 지난 8월 27일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화훼생산자 단체, 농민 등 12명과 화훼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화훼산업 발전방안 논의와 농가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배합, 국화, 톨립, 작약 등 지역 내 주요 생산단체 및 농가가 참

여하였다.

도는 판매부진, 인력부족 등 화훼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였고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와, 생산·판매량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축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을 연계한 화훼산업 육성, 온라인 판매 확대, 미디어 매체 홍보 등 새로운 판매환경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최태순 도 유통유통예과장은 도내 화훼산업의 생산량 감소와, 판매 부진으로 우려가 크다며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에서 더욱 소통하고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북구 송정지구, 울산 첫 '스마트 도시' 조성 완료

북구 송정동 일대가, 울산 최초의 '스마트 도시'로 거듭난다.

울산시는 울산형 스마트 뉴딜의 대표사업인 '스마트 도시 선도지구 조성'의 첫 사업지 '북구 송정 택지개발지구'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8월 30일 오전 11시 송정지구 빛물펌프장(북구 송정동 77번지) 일원에서 '송정지구 스마트 도시 조성 준공식'을 갖는다.

'스마트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등의 도시기반 건설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도시의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5월 '울산형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형 스마트도시 선도지구 조성'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송정 택지개발지구'를 우선지구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와 북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2020년 4월부터 송정 스마트지구 조성에 착수,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차량흐름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 효율형 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공공안전, 정보통신 복지 강화 등의 '시민 편의형 서비스' 2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됐다.

먼저 '공공 효율형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관리센터에 전송하는 교통체어정보제공(6개소) ▲차량고장, 사고 등의 비정상적 교통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돌발상황관리(2개소)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신호·과속단속카메라(3개소) 설치 등이다.

'시민 편의형 서비스'는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단말기(24개소) ▲냉난방,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기능 등 갖춘 스마트버스



정류장(6개소) ▲휠단보도 진입로에 보행신호와 연동된 엘이디(LED) 바닥조명을 설치하는 스마트바닥신호 등(2개소) ▲범죄예방과 신속대처를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15개소) ▲미세먼지 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전광판(1개소) ▲데이터 시각화대를 해소하는 공공와이파이(18개소) 등이 포함됐다.

교통,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스마트 도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기반시설 관리 등의 사회적 비용은 30% 이상 절감되고 도시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으로 주민 1인당 연간 40시간 이상의 버스 대기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울산시는 '송정 택지개발지구'에 이어 '케이티엑스역세권복합특화단지'와 '중구 다운2단지개발지구' 등도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나가면서 '첨단 스마트도시 울산'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9월 1일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2022~2026 울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송철호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일상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지도록,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부산시,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 골목길 협의체 중심 로컬 콘텐츠 운영 등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및 자생력 확보

부산시는 31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부산관광공사 사장, 부산진구청장, 수영구청장, 그리고 앵커기관인 쉼티스케어 대표, 비온후채방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 수영구 '망미골목'과 부산진구 '서면전리단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사업관계자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향후 '망미골목'에는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고 포켓 쉼터를 조성하며, 아트 북페어·콘퍼런스 등 각종 로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전리단길'에는 곳곳에 어닝과 미디어 아트를 조성하고 전리단길 캐릭터 콘텐츠를 공모하여 이모티콘·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공모 평가에 참여한 국내 저명 문화심리학자는 “막상 직접 눈으로 본 부산 골목길의 팔팔팔팔살이 숨 쉬는 VIBE를 느꼈다”며 “부산의 진면목을 인사이트 투어 등 여러 경로로 소개하고 싶어진다”고 전했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골목

남궁영기기자

# SK에코플랜트(주), 대구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대단지!

## ‘달서 SK VIEW’ 8월 27일 견본주택 오픈!

▶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단지...도보거리 내 초·중·고 학군 ‘눈길’  
 ▶ 교통·미래가치·생활인프라 두루 갖춘 1군 브랜드 대단지  
 ▶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59~102㎡ 총 1,196세대 중 526세대 일반분양

SK에코플랜트(주)가 오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달서 SK VIEW’(이하 달서 SK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달서 SK뷰’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달서 SK뷰’는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단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리동 433번지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59~102㎡ 총 1,196세대 대규모 대단지이며, 이중 전용 59·74㎡ 526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이번 단지는 SK에코플랜트(주)가 사명 변경 이후 첫 재건축 분양 사업이다. SK에코플랜트(주)는 SK건설의 새 이름으로, 건설업과 더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청약일정은 9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해당지역에 이어 8일 1순위 기타지역, 9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실시할 계획이다.

◆ 도보거리 학세권 ‘눈길’...편리한 교통 기반 서대구KTX·대구시청 신청사 호재 더해

‘달서 SK뷰’는 도보권 학군을 기반으로 안전한 자녀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먼저, 대구덕인초등학교가 단지 직선 100m 거리로 가깝다.

여기에 대구장동초·대구장기초·새본리중·효성중·효성여고·대건고 등 전 연령대 학군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편리한 교통환경도 갖췄다. 대구 내 핵심도로인 달구벌대로와 와룡로와 가까워, 시내 곳곳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남대구IC 등과도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서대구 KTX역이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속철도가 하루 양방향 20회 이상 서울과 부산을 오갈 계획으로, 서대구권 교통 관문 역할을 해낼 전망이다. 또,

경부선·대구권광역철도·달빛내륙철도·통합신공항철도·대구산업선 등 여러 노선이 더해질 예정인 만큼, 유동인구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신청사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및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청사를 중심으로 물의 정원, 이음광장, 스마트상점, 대규모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설 예정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마련돼 있

다. 중심상업지역과 가깝고 이마트, 홈플러스, 의료시설은 물론 출판벨리 수변공원, 장기공원, 두류공원, 학산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다.

특화요소도 도입된다. ‘달서 SK뷰’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PV)과 ‘지능형 환기시스템’이 적용돼 주거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달서 SK뷰’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리동 433에 자리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문의번호 053) 555-8500  
 박류석/대기자

